

國民國家形成期 韓國 教科書에 나타난 渤海史 認識

Parhae History Awareness in Korean textbooks of Nation-State Formation Period

구난희(한국학중앙연구원)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국민국가 형성기의 발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를 이 시기 발행된 교과서 서술을 통해 검토할 것이다.

근대국민국가 형성기에 있어서 역사는 민족 구성원들에게 공동체로서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공동의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제공하였다.

역사가 어떠한 요소와 어떠한 서사구조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가는 각국이 처한 현실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서구의 경우 일정한 국경을 구획하고 그 영역 내 존재하는 정치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면서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역사를 통한 국민적 정체성 확립은 기존의 동질성 위에 국민적 결속을 강화하면서 역사의 유구성과 제국성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스테판 베르거에 의하면 공동의 기억 재구성은 민족사를 만들어내는 수준과 민족사 재현의 투사라는 다른 성격의 수준이 있으며¹ 고대나 중세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민족의 연원이나 민족국가의 중단없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후자적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은 실학연구가 융성하던 19세기부터 국학연구와 함께 확대되고 있었으며 북방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졌다. 18세기 중반부터 1712년 정계 비판에 따른 先春頌說, 分界江說 등이 부각되고 지리고증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북방 인식이 형성되었다. 고구려에 한정했던 종전의 인식을 넘어서서 다원적 종족계승 논리를 생성하여 고대북방 의식을 확장하였다. 丁若鏞은 『疆域考』에서 다소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북방의식을 보이지만 발해 강역에 대한 고증을 확대하고 신라의 발해 침공 협조를 비판하는 등의 적극적인 이해를 보이기도 한다. 韓致齋의 『海東繹史』와 韓鎭書의 『海東繹史續』 또한 이러한 이중적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인 지리 고증을 통하여 고구려와 발해 강역에 대한 확대된 지식을 축적하였다. 한편 金正浩는 정약용과 달리 廢四郡 復置 등의 현실 문제에는 소극적이지만 고대북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적극적이었다.² 이러한 양면적 인식은 근대 문물의 도입과 함께 더욱 복잡적이고 중층적인 구조를 형성하였다. 전 시기의 국학연구의 흐름을 전통사상으로 계승하는 동시에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양 근대역사학의 영향과 조우했고, 청에 대한 멸시와 불만을 견지하면서도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을 견제해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양상이 교과서 서술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근대국가 형성기의 자국사가 갖는 어떠한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겠다. 발해는 민족의 연원을 이어나가는 매개로서는 충분한 의미가 제공되지만 민족국가의 중단없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한국사에 있어서 국민국가 형성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논자들마다 이견이 있을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구한말부터 해방직후까지로 삼고 개화기, 통감기, 일제강점기, 민족해방기, 분단고착기의 5 시기로 구분하여 살피고자 한다.

¹ 이진일,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국사', 한국사학사학보 27, 2013, 288-289 쪽에서 재인용.

² 구난희, 「북방고토 의식의 추이에 관한 고찰 1」, 『고구려발해연구』 42, 2012.

2. 개화기³ 교과서 속의 발해 인식

1895 년 학부관계 공포 이후 본격적으로 근대법령에 근거한 교과서가 발간되었다⁴. 각급 학교령이 발표되었으며 여기에 ‘본국역사’라는 과목을 가르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⁵ 본국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국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史曆의 대요를 알게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⁶ 자국사 교육을 통해 역대 왕조와의 동일성과 역사의 유구성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공동적 경험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 시기 학부 편찬 국사교과서는 다음과 같으며 음영으로 표시한 교과서가 이 연구에서 검토된 부분이다.

【표 1】 개화기 국사교과서

도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朝鮮歷史 (3 권 3 책)	學部編輯局 編	學部編輯局	1895
朝鮮歷代史略(3 권 3 책)	學部編輯局 編	學部編輯局	1895
朝鮮略史(3 권 3 책)	學部編輯局 編	學部編輯局	1895
東國歷代史略(6 권 3 책)	學部編輯局 編 ⁷	學部編輯局	1899
大韓歷代史略(2 권 2 책)	學部編輯局 編	學部編輯局	1899
普通教科東國歷史 (5 권 2 책)	學部編輯局 編 ⁸	學部編輯局	1899

1895 년 발행된 『朝鮮歷代史略』는 근대 교육제도가 마련된 이후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국사교과서로 순한문체로 쓰였다. 편년체 구성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발해는 新羅紀 속에서 언급된다. 발해가 언급되는 지점은 당으로부터 발해군왕으로 책봉받은 성덕왕 11 년에 한하며⁹ 이

³ 이 시기는 다시 갑오개혁기와 광무개혁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일본 근대화의 영향에 의한 신학제의 도입에 주력하였던 반면, 후자는 비주체적이고 침략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구래의 교육 전통을 바탕으로 주체성에 입각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⁴ 1895 년에 학부 관계가 공포되었고 같은 해 4 월 1 일 시행되었으며 이에 이어 학부 분과 규정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 편집국 관장 사무를 규정하는 가운데 교과서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학부국은 전신인 학부아문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총무국, 성균관급 상교서원 사무국, 전문 학부국, 보통 학부국, 편집국, 회계국 등 6 개 국으로 조직되어 있다. 편집국에 관한 사항은 제 6 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번역, 편찬, 검정, 구입보존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근대 교육 제도에 따른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발간되었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대한교과서사 1948~1998』, 1998, 32-56 쪽)

⁵ 開國 504 년 7 월 22 일 勅令 제 154 호 小學校令(관보 제 119 호); 동년 7 월 24 일 學部令 제 1 호 漢城師範學校規則(관보 제 121 호); 동년 8 월 9 일 學部令 제 2 호 成均館經學院規則 (관보 제 135 호).

⁶ 開國 504 년 8 월 15 일 學部令 제 3 호 小學校校則大綱 제 7 조.

⁷ 이 책과 대한역대사략의 실제 집필자는 당시 학부에 근무하던 김택영이었다. 이후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1902 년 동사집략을 편찬하고 이어 역사집략을 편찬하였다.

⁸ 1910 년 학부문서에는 이 책의 저자를 玄采로 기록하고 이후 총독부 교과서 일람도 이를 따르고 있다.

⁹ 성덕왕 12 년 713 년의 사실이다. 개화기 교과서에서는 신라 연대를 유년기년법에 의하여 환산하였는데 이는 전근대적 정통론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었다(유영옥, 「개화기 국사 교과서의 기년법」, 『역사와 경계』 79, 2011, 127-129 쪽).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은 모두 즉위년기년법에 의거하였으므로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 문제는 제 1 차 교육과정기까지도 계속되었는데 후술하겠다.

공간을 통해 건국으로부터 책봉까지의 사실을 소략하게 기술하고 있다(5 쪽). 발해의 멸망은 별도로 경애왕 2 년¹⁰에 기술하였다¹¹. 이 책의 기년 표기는 중국, 신라, 고구려, 백제의 순으로 병기하였으며 후삼국시대에는 후백제와 후고구려도 기록하였다. 하지만 남북국 시대는 신라 연대에 이어 발해연대는 기록하지 않고 중국 연호만을 병기하였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발해를 한국 역사에 포함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발간된 『朝鮮歷史』는 조선력대사략을 축약하여 교재로 출간한 것이다. 국학문헌용체를 썼으며 3 권 3 책의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이 책에서 발해는 단지 926 년의 멸망 사실만을 적고 있다(34 쪽). 그러나 이 서술은 ‘거란이 발해를 멸 야 동단국을 삼다...국호를 遼라 다’고 이루어져 있어 발해멸망 사실조차도 거란 세력을 서술하는 가운데 내용요소 정도로 다루어질 뿐이다.

1899 년 광무개혁기에 와서 발해 서술은 더디게나마 변화한다. 광무개혁기(1899 년)에 편찬된 교과서는 학부편집부 명의로 개발되었지만 실제 집필을 주도한 것은 金澤榮과 玄采였다. 1899 년 『東國歷代史略』에서도 발해는 733 년¹² 金允中의 파견 사실을 설명하는 가운데 간략히 소개하고 발해의 멸망은 별도로 서술하였다(30 쪽). 서술 내용은 미소하게나마 늘어났지만 ‘大野勃이라는 인물이 제부를 토벌하였고 大祚榮은 그 4 세손’으로 잘못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7 쪽). 발해에 대한 기초적 사실 내용조차도 공유되지 않았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1899 년 발간된 『普通教科 東國歷史』는 초등용 국사교재인데 이 또한 편년체로 서술되어 있다. 집필자는 학부로 표기되었지만 이를 집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는 玄采였다. 이 책에서도 발해는 733 년 당의 요청으로 발해 정벌을 지원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이 책에서도 오류를 보이는데 宣王이 大野勃이며 대조영의 동생으로 70 세에 즉위하였다고 잘못 서술하고 있다(8-9 쪽). 서문에 뒤이어 역대일람을 실었지만 발해는 제외되었다.

1890 년대 후반 학부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는 전통적 서술방식을 유지하면서¹³ 명분론적 역사인식관을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발해 관련 서술은 732 년 신라의 발해 침공 지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발해를 다루고 있으며 건국으로부터 멸망에 이르는 전과정을 1/2 쪽 정도의 소략한 분량으로 취급하였다. 즉 발해는 단지 신라의 인근국가로 위치하였으며 소개되는 사실 내용조차도 오류를 동반하고 있었다. 근대적 체도가 정비되고 민족의식이 태동하고 있었지만 민족의 역사적 공간은 한반도 내로 한정되었고 발해는 신라정통이라는 전근대적 인식에 가리워져 있었다.

3. 통감기 국사교과서 속의 발해 인식

1905 년에 접어들면서 발해사에 대한 취급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일제에 의한 침탈이 가시화되면서 민족인식은 부국이 아닌 보국의 논리에 집중되고¹⁴ 자국사는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자국사를 중화문명으로부터 분리해내어 독자적인 체계를 잡는 데 집중되었다. 이런 가운데 고대 북방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한국사의 연원을 확대하는 데 시각이 두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발행된 교과서는 아래 표에서 보듯 다양하였는데 이 글에서 분석한 교과서는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¹⁰ 이 또한 유년기년법에 의한 기년이었다. 발해는 경애왕 3 년 926 년에 멸망하였다.

¹¹ 다만 거란을 東胡의 일파라고 서술하고 그 근거를 梁史라고 밝히고 있다.(57 쪽)

¹² 이 책에서도 733 년을 성덕왕 31 년으로 잡고 있다.

¹³ 비록 발해사 서술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기년의 표시 방식에서는 1895 년과 1899 년 사이에는 뚜렷한 변화가 있다. 전자의 시기에는 단군조선으로부터 조선 개국기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시기에는 각 왕조의 왕기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중국기년, 일본기년, 서력을 병기하고 있다.

¹⁴ 김영명 외, 「전통적 공동체 의식 변화와 근대 민족인식의 형성」, 『사회이론』 43, 2013, 326 쪽.

【표2】 통감기 국사교과서

도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大東歷史(5권2책)	崔景煥		1905
大東歷史(12권4책)	鄭喬		1905
歷史輯略 (1권2책)	金澤榮	?	1905
中等教科東國史略(4권2책)	玄采		1906
新訂東國歷史(2권2책)	元泳義, 柳瑾	徽文館	1906
中等教科東國史略(4권2책)	玄采	普成館	1906
普通教科大東歷史略(7권1책)	兪星濬	博學書館	1906
대한력사 (1책)	헐버트, 吳聖根	玉虎書林	1908
大東靑史(1책)	黃義敦		1909
國朝史	원영의		1910
初等本國歷史	安鍾和	廣德書館	1910
初等本國歷史(1책)	安種和	廣德書館	1909
초등대한력 (1책)	조종만	한양서관	1908
初等大東歷史(1책)	朴晶東	同文社	1909
初等本國略史	興士團	同文館	1909
新撰初等歷史(3권3책)	柳瑾	廣德書館	1910
初等本國歷史(1책)	柳瑾	廣學書浦	1908
初等大韓歷史(1책)	鄭寅琥	同文社	1909

鄭喬에 의해 발간된 『大東歷史』는 동일명으로 최경환이 간행한 역사서 2책(단군조선과 기자조선, 마한)에다¹⁵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각 1책씩 합쳐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4책 12권으로 간행한 것이었다. 발해는 4책의 권11과 권12의 新羅紀에서 서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편년체의 서술방식을 띠면서 발해를 신라왕의 역년 중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의 교과서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전의 책들과 달리 발해와 관련된 사실 내용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역대 왕들의 즉위사실, 발당전쟁, 대일본 교류, 대당교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실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포함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일례로 발해의 제도는 선왕 사후에 연이어 기록한 것으로 보아(76-79쪽) 선왕대에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이해할 정도로 사료 검토와 분석이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와 관련된 사실을 신라와 함께 시기별로 정리한 것을 보면 정교는 발해역사를 통일신라와 함께 우리 민족사의 일환으로 보려 했던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신라와 관련된 사실은 국호의 별도 명명없이 서술하는 데 반해 발해 관련 사실은 ‘발해가…’ 또는 ‘발해의 …’라

¹⁵ 동일명의 또다른 『大東歷史』는 崔景煥이 편집하고 鄭喬가 교열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작업을 주도한 것은 정교로 본다(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17, 아세아문화사, 1977, 해제 6-7 쪽).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독립협회 회원들이었으므로 역사서 편찬의 목적이 민족의 독립성과 전통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으로 이어지는 정통론에 입각하여 기술하고 있다.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이 시기의 역사 서술의 주체는 신라였다. 발해를 한국사에 포함하여 서술하되, 신라정통성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金澤榮에 의해 발간된 『歷史輯略』은 이전의 『東史輯略』을 보완, 가필하여 11 권 3 책으로 발간한 것이었다. 자서의 앞 부분에서 밝히고 있듯이 柳得恭의 『四郡考』, 『渤海考』를 열람하고 새롭게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남북국시대의 왕기 또한 신라와 발해를 동시에 사용하고 대동역사처럼 양국의 역사를 하나의 편년으로 혼합하여 서술하고 있어 유득공의 남북국시대론을 서술 체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또한 이전의 여느 교과서보다 확대되었다. 그러나 목차에서 해당 시기를 ‘新羅紀(附 渤海國)’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왕은 ‘旣’, 고구려왕은 ‘葬’으로 표기한 반면 발해왕은 ‘卒’로 적고 있다. 이로 보아 신라 정통의 전제하에 고구려, 백제 그리고 발해로 서열화하였다. 하지만 일본왕을 기록할 때는 ‘日主’라 표기한 것을 보면 한국사를 우위에 두고 그 속에 발해사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6 년에 현체가 쓴 『東國史略』은 모두 2 책 4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전 교과서가 취하는 편년체를 탈피하고 新史體 通史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해는 신라 서술 중에 포함하여 언급되던 것을 벗어나 태봉, 후백제와 함께 독자의 소단원으로 할애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발해를 粟末靺鞨로만 언급한다든가 일본 사신 파견을 독자의 단락으로 편성하는 등은(36-38 쪽) 林泰普의 『朝鮮史』를 역술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¹⁶

이에 반해 1906 년에 편찬된 『大東歷史略』은 7 권의 구성 속에서 발해를 다루었지만 대동역사로부터 동국사략에 이르는 변화와 달리 발해는 종전의 인식위에서 다루고 있다. 예컨대 발해는 卷 5 新羅紀 중 733 년조 발해국 파병 기사에 연이어 언급되고 선왕을 대야말로 서술하는 등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85-86 쪽). 1899 년 발간된 동국역사를 따르고 있었다.

1908 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초등용 역사교과서에서 발해 서술은 소략하다. 하지만 초등용의 略史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 시기의 변화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를 읽어낼 수 있다.

1908 년에 발간된 鄭寅琥의 『初等大韓歷史』는 신라 중심의 연대기적 방법을 벗어나 별도로 제 4 장에서 가야(가락), 대가야, 발해, 태봉, 후백제 등의 국가를 차례로 다루는 새로운 편제를 보인다. 발해는 제 5 절에서 대조영, 발해, 건국이라는 단원을 두어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민족사의 내용을 모두 망라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새로운 역사 서술의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내용면에서도 대조영을 고구려 유민으로 서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라 하겠다(44-45 쪽).

같은 해 편찬된 조종만의 『초등대한력』은 같은 해 편찬된 柳瑾의 국한문 혼용으로 집필된 『初等本國歷史』를 순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이 책 역시 초등대한역사와 유사한 구조를 띠면서 발해는 별도의 단원으로 할애되고 있다(22-23 쪽). 더불어 고구려 멸망 말미에서 남방은 신라의 소유 북방은 발해국이 소유한 바 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고구려 계승에 대한 여지를 남기도 있다(19 쪽).

1910 년에 발간된 『新撰 初等歷史』는 신사체 방식을 띠면서도 단원의 제목은 이전의 편년체 형식을 띠고 있다. 대조영의 출자에 대해서는 말갈인으로 고구려에 신속하였다고 애매하게 서술하고 있다(12-13 쪽).

이들 3 종의 교과서는 소략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신사체의 구성체제 위에 발해를 별도 단원으로 설정하는가하면 내용면에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라는 입장으로 좀 더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발해를 한국사의 체계에 안착시키는 데는 소극적인 부분도 노출하고 있다. 본문 앞에 역대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발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¹⁶ 이밖에도 이 책은 임나의 존재(위의 책 권 1, 25 쪽)신공황후의 신라침공(29 쪽)을 그대로 전제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초등대한력 에에 삽입된 大韓歷代傳授圖에서도¹⁷ 초등본국역사에 수록된 本國歷代圖에서도¹⁸ 발해는 들어가지 않았다.

1905 년을 전후하여 발해사에 대한 비중과 관심은 순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동역사에서부터 발해에 관련된 사실을 한 시기에 몰아서 간략 서술하던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신라와 함께 서술하기 시작하였으며 역사집략에 와서는 기년에 발해가 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초등략사류의 교과서에서는 소략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현채가 쓴 동국사략은 편년체를 탈피하고 신사체 통사를 취하면서 발해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는 변화를 보인다. 비록 신라정통론이 견어지지 않는 않지만 발해사가 고구려 계통이라는 매개를 통해 한국사의 한 귀통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획기를 이루었다.

4. 일제 강점기 국사 교과서 속의 발해 인식

개화기의 몇차례 변화 속에서 더디게나마 진전된 발해 인식은 일제강점기를 맞으면서 좌초하고 말았다. 가장 큰 원인은 일제에 의해 구한말에 발간된 다종의 국사 교과서는 몇차례의 조치를 거치면서 모두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발해인식에 적극적으로 귀인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적 민족주의의 시각으로 한국사의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목살되었다는 큰 흐름에서 보면 한국사 내적 구조에 안착의 첫 걸음을 딛는 발해는 다른 어느 시대나 분야보다 치명적인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다.

아래 표는 조선총독부 교과서 일람을 통해 구한말에 발간된 교과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총독부의 학부는 교과서에 대한 몇차례의 조치를 가하였고 검정과 인가를 통해 처리하였다. 검정을 출원한 경우 검정을 시행하였고 검정받지 않은 도서를 학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했다. 자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912 년에 일차적으로 4 개의 교과서만 남기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다시 1915 년에 이르면 조선인 저작 교과서는 모두 활용이 금지되고 말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당시 총독부는 발매금지된 교과서를 압수하고 발행자와 저자, 제작연도를 미상으로 표기하는 등 각종 훼손을 단행했다. 구한말에 개발된 22 종의 교과서 중 일제강점기에 그 존치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13 종이다. 이 밖에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교과용도서일람에 포함되지 않은 교과서는 아예 망실되거나 비공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표3】 일제강점기의 구한말 발간 교과서 처분 현황

도서명	저자	출판사	1912년 ²⁰	1915년 ²¹
初等本國歷史(1책)	安種和	廣德書館	검정	검정무효

¹⁷ 전수도에서는 고조선부터 삼한을 잇고 마한-백제, 진한-신라, 변한-가락으로 연결한 뒤 이를 신라가 통일하였다고 후백제, 태봉으로 갈라진 뒤 고려로 재통일 된 뒤, 조선, 대한제국(대한만만세)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발해는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았다.(조종만, 위의 책, 4 쪽)

¹⁸ 안중화, 초등본국역사, 광덕서관, 1909, 2 쪽. 이 책은 부여의 시조 해부루를 단군의 아들이라 규정하여 부여를 단군조선과 함께 강조하고 있어 북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¹⁹ 이로써 일제강점기초의 역사교육은 ‘국어독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어독본은 통감부 시기의 일어독본을 수정하여 보완한 것이다.

²⁰ 朝鮮總督府, 『教科用圖書一覽』, 1912年(改訂6版).

²¹ 朝鮮總督府, 『教科用圖書一覽』, 1915年(改訂9版).

初等大東歷史(1책)	朴晶東	同文社	검정	검정무효
初等本國略史 ²²	興士團 ²³	同文館	검정	검정무효
新撰初等歷史(3권3책)	柳瑾	廣德書館	검정	검정무효
初等本國歷史(1책)	柳瑾	廣學書浦	불인가	불인가
初等大韓歷史(1책)	鄭寅琥	同文社	불인가, 발매금지	불인가, 발매금지
新訂東國歷史(2권2책)	元泳義, 柳瑾	徽文館	불인가, 발매금지	불인가, 발매금지
中等教科東國史略(4권2책)	玄采	普成館	불인가	불인가, 발매금지
普通教科東國歷史(5권2책)	學部編輯局編 ²⁴	學部編輯局	불인가, 발매금지	불인가, 발매금지
普通教科大東歷史略(7권1책)	俞星濬 ²⁵	博學書館	불인가	불인가
大東歷史(12권4책)	鄭喬		불인가	불인가
歷史輯略(1권2책)	金澤榮	?	불인가	불인가
東國歷代史略(6권3책)	學部編輯局編	學部編輯局	불인가	불인가

결국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가 직접 발행한 교과서와 일본에서 검정 발행된 교과서 중 인가받은 교과서에 한하여 사용을 허락하였다. 일본에서 발행된 교과서라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 통치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교과서만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활용을 허가했던 교과서는 아래와 같이 극소수에 한정되었다.

【표4】 일제강점기 역사교과서

도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비고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 兒童用 (2권)	朝鮮總督府	庶務部印刷所 ²⁶	1920	조선총독부 편찬
普通學校國史 兒童用 (2권)	朝鮮總督府	庶務部印刷所	1922	
普通學校國史(2권)	朝鮮總督府	朝鮮書籍印刷公司	1932	
新撰大日本帝國史略 (+ 新撰大日本帝國史略 朝鮮文)	加藤盛一 高橋俊乘	日韓書房	1913	조선총독부 검정
朝鮮歷史大全	張弼	博文書店	1928	비공식교과서
大日本歷史提要	加藤盛一 高橋俊乘	富山房	1920	조선총독부 인가

²² 1910년 1월에는 없었다가 1910년 7월에 포함되었다.

²³ 학부문서에는 朴晶東의 저작으로 되어 있다.(朝鮮總督府, 위의 책)

²⁴ 학부문서에는 玄采 저작으로 되어 있다.(朝鮮總督府, 위의 책)

²⁵ 1906년판 대동역사략에는 관권이 없어 저자 확인이 어렵고 발행인은 국민교육회로 되어 있다. 국민교육회는… 다만 1908년 동일명으로 동일한 내용의 교과서가 발행되었는데 그 저자가 유길준의 친동생인 유성준으로 되어 있어 이 책 또한 유성준이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²⁶ 庶務部는 조선총독부 소속 부서로 1919년부터 1924년까지 운영되었다.

강점 직후 일제는 자국의 교육칙어를 그대로 도입하여 國體明澄, 內鮮一體, 忍苦鍛鍊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통학교에서 역사교육은 실시되지 않았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본에서 발행된 『新撰大日本帝國史略』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보통학교에서 역사과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제 1 차 조선교육령 개정(1920.11.9.)에 따른 것이었다. 이 시기 사용된 것은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 兒童用』으로 일본학생들이 사용하는 尋常小學國史에다 조선의 역사를 보충한 것이었다. 곧 이어 보통학교 국사가 편찬되어 1923 년부터는 『普通學校 國史』가 사용되었다.

이들 교과서에는 한결같이 발해가 언급되지 않았다. 新撰大日本帝國史略과 大日本歷史提要는 일본사를 담은 것이기에 한국사 내용이 거의 수록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보통학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를 보충하여 제작한 교과서에서조차 발해는 배제되었다. 한국사에 대한 비중약화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당시 일제는 1908 년 滿鐵 내에 설치된 만선지리 역사조사실을 중심으로 만선사를 정립하는 가운데 발해사를 한국사가 아닌 만주사의 일환으로 이해하게 된 것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참고로 일제강점기 이전 일본에서 사용한 교과서에서부터 발해는 한국사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²⁷

상권에서 발해는 고구려 계승국이 아니라 만주에 건립된 ‘새로운 국가’로 간주하고 있어 만선사적 연구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일본에서 검정 발행된 교과서를 인가하여 활용하도록 하거나 직접 교과서를 편찬·발행하기도 했다.²⁸

일제의 한국사 멸실과 탄압 속에서도 서당이나 야학, 그리고 독립운동 기지에 설립된 학교에서는 한국사 교육을 추진해왔고 여러 형태의 한국사 교재가 개발되었는데 특히 張道斌의 『朝鮮歷史大典』는 일제 암흑기를 거쳐 완전히 한국사에서 탈각될 수도 있었던 발해를 한국사의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었다. 장도빈은 『國史』(1916), 『朝鮮歷史要領』(1923)을 집필하였고 명동학교, 오산학교의 국사 교사 경험을 더해 조선역사대전(1928)을 집필하였다. 조선역사대전은 조선역사요령과 마찬가지로 고대사 비중이 70% 이상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고구려와 발해에 집중하고 있어 고대사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발해에 대한 관심은 단원구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남북국시대라는 이름의 단원을 두고 발해와 신라를 나란히 다루었다. 중단원의 제목으로 본다면 신라보다는 오히려 발해를 우위에 두고 있었다고 해석해 볼만하다. 특히 2 단원 발해의 강성, 신라의 文弱에서는 발해의 무왕, 문왕, 선왕대의 업적을 들어 발해의 발전과정을 서술한 반면 신라는 통일 이후 태평안락으로 인해 상하가 사치하고 안일에 빠지게 되었다고 서두를 시작한 이후 혜공왕 이후의 상황을 들어 언급하고 있다(114-116 쪽).

발해 서술은 어느 시대 교과서보다 풍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발해건국 연도를 698 년으로 설정하였으며(후술하겠지만 해방 이후에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발해의 건국 연도를 699 년으로 기술하였다) 발해군왕 이후 발해라 칭하였다는 신당서 내용을 바로 잡는가 하면(11 쪽) 천문령 전투, 등주 공격 등의 주요 사건은 물론 대일 파견시 품목이나 국서도 소개하고 있다.²⁹ 특히 여기서 일본 천황을 ‘日主’라고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18-19 쪽 및 31-

²⁷ 일본 역사에서 발해를 최초로 언급한 것은 1879 년의 『小學日本史略』이다.(海後宗臣. 仲新編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十八卷 歷史(一)』, 講談社, 1963, 274-275 쪽.) 발해 역사에 대한 서술보다는 일본과의 교류에 초점을 두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신라침공계획이라는 가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887 년에 나온 『小學校用 歷史』에서도 발해를 간략히 다루고 있는데 양국의 교류가 개시되기 전 일본의 사신 파견이 있었다고 서술한 부분이 이채롭다(海後宗臣. 仲新編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十八卷 歷史(二)』, 講談社, 1963, 24 쪽.)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의 일본 교과서에서 발해와 관련된 서술은 오히려 사라지고 당과의 교류만 언급되었다.

²⁸ 1941 년(昭和 16) 학교제도 개혁에 따라 소학교는 국민학교로, 심상소학교는 국민학교초등과로 되었다. 당시 국사교육은 국민 정신을 함양하고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국사는 국어, 수산, 지리와 함께 국민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책은 1943 년(昭和 18)에 간행된 책이다.

²⁹ 대당 파견 사실을 설명하면서 다소 발해가 당에 조공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여주는 정황 예컨대 798 년 추증, 897 년 석차쟁장사건은 설명하지 않는 반면, 대일교류에서 일어난 사건은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32 쪽). 신라의 사신 과견도 언급하였고 여기서 나온 北國이 발해임을 崔致遠의 謝不許北國居上表를 들어 뒷받침하는 등(26 쪽) 발해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드러나고 있다. 발해사에서 전하는 몇 안되는 주요 인사를 분야별로 고루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³⁰ 발해군왕 남북국지도도 제시하고 있다(118 쪽).

개화기에 나타난 발해에 대한 진전된 서술은 일제강점기를 맞으면서 다시 쇠락하였지만 張道斌의 朝鮮歷史大典은 신라에 버금가거나 혹은 우위에 서있는 발해사를 재조명하였다. 그의 업적은 해방 이후 발해사 연구에도 귀중한 영향을 주게 된다.

5. 민족해방기 국사교과서 속의 발해 인식

해방을 맞이하면서 교육제도는 숨가쁘게 재편되었고 자국사 교육도 크게 변화하였다. 오천석을 중심으로 한 새교육운동 계열과 손진태 등을 중심으로 한 신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국사교육의 구상이 있었으나 결과는 전자의 방향에 따라 사회생활과가 도입되어 세계사를 먼저 학습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역사는 과목이 확정되자 다종의 교과서가 발행되었으나 대부분이 망실되어 그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수집가능한 교과서에 한해 검토하였다.

【표 5】 교수요목기 발간 국사교과서

도서명	저자	발행사	발행연도
國史敎本	震壇學會	軍政廳文教部	1946
중등 조선역사	황의돈	삼중당	1946
조선역사	申泰三	世昌書館	1945
조선사	김성철	정음사	1948
쉽고 빠른 조선력사	최남선	동명사	1946
성인교육국사독본	최남선	군정청문교부	1947

중등용 국사 교과서인 『國史敎本』은 진단학회에서 미군정청의 위촉을 받아 한 달 만에 집필된 것이다.³¹ 동일시기에 집필된 『초등국사』에 비해 고대사가 적은 대신, 고려와 조선의 비중이 높았다. 삼국시대에서 신라의 비중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발해는 제 1 편 상고(의 후기) 중 제 3 장 삼국의 통일과 문화 ‘제 3 장 삼국의 통일과 문화’에서 다루고 있다(17-18 쪽). 발해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을 2 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신라와 일찍부터 사귀었다고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中等 朝鮮歷史』에서도 신라와 발해가 공존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칭하고 있다³².

³⁰ 일반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는 고보영(39 쪽), 고보원(61 쪽)까지도 다루었다.

³¹ 『국사교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식민사학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당시 한국사 연구의 수준 때문이었지만, 진단학회의 연구방법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진단학회 주류의 연구를 ‘식민사학의 아류’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사교본』의 내용에서 그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근세로 구분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시기 구분을 당쟁이나 사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든지, 한국사에서 중요한 사회 변화의 동인을 대외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당파성론’이나 ‘타율성론’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최상훈, 「현대 역사교육의 시작과 전개」, 미발표원고)

³² 제 9 장과 제 11 장이 이시기에 해당하는데 각각 ‘남북국의 대립’, ‘남북국의 전성’, ‘남북국의 쇠망’으로 적고 있다. (25-31 쪽)

김성철의 『朝鮮史』는 상고사의 27개 주제 중의 하나로 ‘발해의 흥망’이라는 제하에서 발해 역사를 다루었다. 여기서도 신라와 교류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발해가 대고구려국을 재생하였다고 평가한다. 다만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명명하기에는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전근대적 정통론의 영향인지 실증론적 판단인지는 알 수가 없다. 신대삼의 『朝鮮歷史』는 제 4 장을 ‘남북국 시대’라 명명하고 그 아래 신라의 변영/발해의 흥기/발해의 세력/신라의 해상/신라와 왜국/신라의 쇠약/발해의 융성/후삼국의 분립/발해의 패망/발해의 회복운동/신라의 讓國/...삼국 및 남북조의 문화/신라와 조선 문화로 소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발해를 신라와 비등하게 다루고 발해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멸망 후의 부흥운동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장도빈의 조선역사대전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발해의 건국을 고구려의 연장선에서 시작하고 있으며(44 쪽) 무왕 이후 발해의 성장과정을 소개하고 선왕대에는 세계강국이 되었다고 다소 과장하여 서술하고 있다. 발해 멸망기에서는 이전에 수차 거란을 정벌하고 張秀實을 참살하는 등을 서술하면서 거란에 의해 급작스레 멸망하였다고 서술한 다른 교과서와 차이를 보인다(46 쪽). 멸망 후 부흥운동과 고려내투도 언급했다. 발해의 문화는 다른 어느 교과서보다 세부적인 사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장가로 대일 시문교류에서 활약한 裴文, 당 빈공과에서 신라보다 높은 점수를 차지한 烏炤度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의욕으로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51 쪽).³³

최남선의 『쉽고 빠른 조선력사』에서 발해는 5 장 ‘북방으로’라는 제목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단원의 서두는 신라의 불완전한 통일로 북방영토가 상실되었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연후에 대조영에 의한 발해 건국을 서술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신라나 발해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도모해야 했으나 발해는 당과 거란의 압박으로 남쪽 진출이 어려웠던 반면 신라는 국민의 마음이 풀려 내분을 일삼았다고 비판하고 있다(25-26 쪽). 또한 발해 멸망 후 백성의 대부분이 고려로 내투하였다고 설명하며 비록 영토는 상실했지만 민족적 단위로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성인교육국사독본』은 본문 57 쪽 정도의 약사로 구성된 교과서로 앞의 123 쪽 분량을 좀 더 축약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해볼 때 발해는 앞의 책보다 좀 더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발해는 제 4 장 ‘하는 이가 장사’라는 제목의 단원에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를 다루는 중에 등장한다. 대조영의 발해 건국은 매우 평이한 문구로 기술되었지만 ‘북편에 있는 나라 땅은 그대로 남아 있고 백성의 의기도 꺾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표현하는 가운데 발해 건국의 고구려 계승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신라의 반도 통일이란 것은 대동강 이남에 끼치고 그 바깥 고구려의 옛 땅이 많이 그대로 있으니 조선 민족의 옳은 통일을 완성해야 할 신라의 책임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다”라고 하여 신라의 불완전한 통일을 평가하고 있다(18-19 쪽). 신라에 대해서는 ‘나라 일을 짊어지고 나가려하는 기개가 차차 적어졌다. 나약한 풍기 가운데 뚱뚱 떠버렸다’고 표현한 반면, 발해에 대해서는 ‘고구려 그진만 못하지 아니한 강성한 나라 노릇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발해를 좀 더 우위로 평가하였다.

해방 이후 발해사는 교과서 전반에서 한국사의 맥락으로 안착되었다. 교수요목에 발해는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라는 명칭하에 다루도록 하고 그 아래 소단원인 2 장과 3 장에서는 발해가 신라보다 먼저 편성되고 있어 발해에 대한 인식은 연구성과보다 더 앞서가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 교과서의 서술 내용면에서도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멸망에 따른 영토 상실의 아쉬움, 대고구려국의 재생, 세계 강국 등의 표현이 등장한 것처럼 민족주의적 영토 인식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교수요목에서도 발해 멸망으로 ‘동명, 고강을 잃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발해의 건국을 고구려 연장선에서 다룸으로써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발해와 신라가 서로 통교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교수요목에 명시적으로 다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한결같이 양국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다룬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해방과 함께 맞은 분단의 사회 현실 속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면서 발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라 하겠다.

³³ 裴文은 裴頌 혹은 裴璆의 오자이며 선명력과 관련한 발해 과학자로 소개한 徐昂는 唐人이다.

6. 분단고착기 국사교과서 속의 발해사 인식

제 1 차 교육과정은 1954 년에 총론이 공포되고 1955 년에 각론이 공포되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³⁴. 중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역사는 ‘사회생활과’ 내의 한 과목으로 2 학년에 편성되었고 고등학교는 ‘국사’ 과목으로 개설되어 2 학년과 3 학년에 편성되었다.

당시 교과서는 김정발행이었기에 다종의 교과서가 발간되었다. 아래는 당시 발간된 교과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5】 제1차 교육과정기 발간 국사교과서³⁵

	도서명	저자	발행사	발행년도	
중 학 교	우리나라 역사	신석호	동국문화사	1957	
	중등국사	이병도	일조각	1956	
	우리나라 역사	이홍직	민교사	1957	
	우리나라 역사	한우근	상문원	1956	
	우리나라 역사	조계찬	백영사	1956	
	우리나라 역사	유홍렬	탐구당	1956	
	우리나라 생활(역사)	이병도	동지사	1960	
	중등국사	역사교육연구회	정음사	1956	
	우리나라 역사	최남선	민중서관	1957	
	우리나라 역사	김상기	장왕사	1957	
	중등국사	조좌호	영지문화사	1957	
	중등국사	이병도	을유문화사	1960	
	중등국사	최영해	정음사	1962	
	고 등 교	국사	이병도	일조각	1956
		국사	역사교육연구회	교우사	1958
국사		김상기	장왕사	1957	
한국문화사		유홍렬	양문사	1956	
한국사		유홍렬	탐구당	1956	
고등국사		최남선	사조사	1957	
우리나라 문화사		이홍직	민교사	1957	
우리나라 문화사		조좌호	영지문화사	1957	

이 시기 발행된 교과서는 서명이 거의 동일하므로 (대표)저자명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다종의 교과서를 순차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일정한 경향성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³⁴ 교육부,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 2000; 이경환 외, 앞의 책, pp.199-216.

³⁵ 박진동, 「해방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 2004, 32 쪽 참조.

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의식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신라와의 관계는 전 시대와 극단적으로 상반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신석호의 교과서는 발해 건국을 언급하면서 ‘30 년간 잃어버렸던 고구려 옛 땅을 도루 찾게’라고 표현하지만 발해와 신라는 전혀 교섭이 없었으며 이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며 발해는 733 년 신라의 침공으로 신라를 원수로 여겼고 신라는 발해를 야만이라 여기었다고 표현하였다. 말미에는 200 여년간 서로 왕래하지 않아 언어와 풍속이 달라져 딴 민족과 같이 되고 말았다고 표현하기조차 했다(41 쪽). 발해 건국연대에 대하여 발해국지장편을 근거로 698 년임을 강조한 대목은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40 쪽). 조좌호의 교과서는 발해 건국을 고구려 부흥운동 단원에서 ‘발해국을 세워 고구려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38 쪽) 이와는 별도로 다시 발해를 독자의 단원에서 건국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어 고구려 계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교를 열 틈이 없었으나’라고 애들러 양국이 교류하지 않았음을 표현하였다. 역사교육연구회의 교과서도 양면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발해의 정치는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 행하여졌으므로 이 나라는 고구려의 재흥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서술하면서도 신라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동일 민족이라는 관념이 없었던 모양으로 민족의 후계자는 신라만인 느낌을 주었다’고 표현하였다.(42-43 쪽) 이병도의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동일하다. ‘발해는 고구려의 부흥이라 할 수 있다’고 한국사 내로 설정하면서 신라와 전혀 교류가 없었음을 전제하고 그 이유는 전 시대의 고구려, 신라 사이의 감정이 계속된 탓으로 서술하고 있다(54 쪽). 발해의 고구려 계승 논리를 덧붙이기는 하나 민족 내 대립을 확대하는 입장도 내포하고 있다.

또다른 경향은 멸망 후 발해가 여진으로 흡수되었다고 서술하면서 상류층을 이룬 고구려계 주민만이 고려로 귀화하였다고 서술하는 점이다. 이병도의 교과서에서 ‘그 유민의 대부분인 여진족은 부족으로 나뉘어 무통일 상태를 이루고 상류층의 다수한 사람은 고려로 귀화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62 쪽) 유흥렬은 발해가 건황 이후 독자연호 사용하지 않고 점차 쇠퇴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며(43 쪽) 김상기는 발해가 멸망한 후 말갈은 여진이 되어 한국사에서 탈각되었다고 서술한다.(87 쪽) 이흥직의 교과서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멸망 후 상황에 대하여 대부분의 말갈족은 여진족이라 불리면서 한국사에서 탈각된 반면, 지배계급을 이룬 고구려계는 고려에 내투하여 통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47 쪽) 한우근의 교과서는 발해에 대한 평가가 더욱 낮아졌다. 우선 목차 구성에서도 발해는 사라지고 신라에 부기하여 팔호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평가는 발해가 멸망한 후 ‘대부분의 유민이 만주 일대에 흩어져 살면서 뒤에 여진이라 일컬어지게’라고 서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42 쪽).

이러한 성향과는 달리 발해사에 대한 세부적 사실은 전 시대보다 다양해지고 상세화되었다. 조좌호는 흑수 징벌, 등주 침공 등의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59-61 쪽) 김상기는 상경의 구조와 발굴 유물과 유적을 자세히 소개하고 6 부가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점, 주자감, 문적원 등 다양한 관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였다.(85-87 쪽) 사실 오류 또한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다. 최남선은 지방제도를 5 경 12 부라고 서술하고(43-44 쪽) 조계찬의 교과서에서는 발해 지방제도를 5 경 5 부 62 주라 하였다.(71 쪽)

고등학교 교과서 역시 신라와의 관계나 멸망 후 유민의 동향 등은 동일한 맥락을 이룬다. 역사교육연구회는 발해는 그 상층인이 고구려계통 사람이었으므로 고구려의 부흥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나 그 국민의 대다수는 ...말갈족이었으므로 우리 나라 민족의 국가같이 느끼지 못하고 신라와는 국경을 접하면서도 왕래가 없었다고 서술하였다.(77 쪽) 이병도의 교과서는 소단원조차도 배려하지 않은 채 단지 ‘민족의 통일과 그 정책’이라는 소단원하에 한 단락 정도의 분량으로 발해를 취급하였다. 발해와 신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양국은 전혀 교류하지 않고 각자 발전을 이루었다 서술하였다(53 쪽).

발해와 관련된 세부 사실은 중학교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교과서 지면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많다. 특히 유흥렬의 교과서에서는 문왕말기에 10 만여 호가 확보되었다는 점, 발해의 주요 성씨, 중앙관제의 세부 설명, 건당 유학승 정소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중에 발해의 군사제도를 5 위라고 잘못 기술하기도 했다(76-81 쪽).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발해 인식은 전 시대에 비해 후퇴하고 있으며 신라와의 관계는 고립 또는 대립, 적대의 관계로 서술하고 있어 극단적으로 상반되었다.³⁶ 6·25 전쟁을 겪은 후 남북간의 긴장이 강화되고 분단이 고착화된 현실을 투영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발해 멸망을 두고 신라와 발해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지 못한 채 북방을 상실하게 된 데 대한 아쉬움은 사라지고 발해 멸망 후 한국사로부터 탈각되었다는 해석에는 6·25 전쟁으로 인한 북한 사회에 대한 적대 의식과 함께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남북 통일보다는 남북간 대결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변화가 아닐까 한다. 아울러 발해 멸망 이후의 유민의 향방에 대해 북쪽은 여진화된 반면 고구려 계통의 상층은 고려로 내투하였음을 강조함으로써 해방 후 역사적 정통성이 북한이 아닌 남한에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6. 맺 음 말

근대국민 국가 형성기의 역사 교과서는 두 가지 시대 과제를 지향했다. 외형적으로 전근대적 역사서술 체계를 해체하고 내용적으로는 민족의 연원을 재구성함으로써 자국사의 유구성과 우월성(제국성?)을 부각하고자 했다. 양자는 모두 발해사 서술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였다.

전근대적 역사 서술 체계는 역대 왕력 중심의 편년체로 명분론적 정통론에 입각한 마한정통으로부터 신라정통으로 이어지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르자면 발해는 한국사의 외곽에 존재해야만 했기에 오랫동안 한국사적 맥락 속에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인근국가라는 과도적 지위만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발해사 서술의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전근대적 역사서술 체계의 근대적 전환은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였다.

한편 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역사교육(교과서)으로 하여금 민족의 연원을 있고 그 유구성과 제국성을 제공해주는 자국사를 재구성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발해는 민족사적 연원을 있고 북방고토에 미친 제국성을 마련하는 중요한 접점이기도 하지만 민족국가의 중단없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지점을 노출하는 것이기도 했다.

발해사 서술의 향방은 신라정통성의 해체와 민족 국가의 재구성이라는 이질적 기준의 향배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그 실재는 시대 상황마다 가변적이었다. 이로 인해 발해사 서술은 시대 흐름에 따라 순항적인 발전 과정을 겪어 온 것이 아니라 성쇠를 반복하는 가운데 시기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여 왔다.

개화기까지만 하더라도 발해는 신라정통성이라는 맥락 구조에서 간혀 인근국의 지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를 맞으면서 공식 발간 교과서에서는 사라지고 말았지만 사찬 교과서에서는 획기적인 서술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배경 위에서 북방에 펼쳐졌던 고대의 제국적 경험은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독자적인 한국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충분조건이었다. 발해는 이를 구성하는 주요 콘텐츠로 주목되었고 여기에는 장도빈이라는 역사가 개인의 관심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해방 후 교과서에서 발해사는 남북국 시대라는 체계 위에 안착되고 전후 사례가 없을 정도로 발해와 신라간의 긴밀한 교류가 강조되었다. 이는 해방과 함께 맞이한 분단의 현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형성하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역사 콘텐츠로 연결지워진 것이라 하겠다.

³⁶ 이 시기 국사교과서는 공식적으로는 민족주의적 관점을 표방하지만 그 강도는 전 시대에 비해 약화되었으며 실증주의적 관점이 혼재하면서 서술 국가들마다 서술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보면(이부오, 「제 1 차~제 7 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영토사 인식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4, 2010, 238 쪽) 발해에 대한 서술은 실증주의적 관점이 전대의 민족주의적 인식을 제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콘텐츠는 6.25 전쟁 이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곧바로 폐기되고 새로운 신라중심적 역사관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발해는 민족의 연원과 북방고토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메타포로만 남겨지고 오랜 기간 한국사의 변두리에 두어졌다.

현재 발해사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 한국사적 맥락과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동시에 통일 시대를 예견하면서 해방 직후의 상황만큼이나 남북 공존과 통일의 염원이 무르익어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교과서 속 발해의 모습은 구성 체제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여전히 분단고착기의 답보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대내외적 상황과 역사교육적 환경은 발해사에 대한 한국사 내적 지위와 내용 구성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본 발표의 내용이 이러한 과정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